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봉 우 컬 럼

욕망이라는 덫

원숭이 잡는 방법을 아는가?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묶어놓은 호리병 속에 땅콩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된다. 호리병 속의 땅콩을 발견한 원숭이는 얼씨구나 하고 손을 호리병 속으로 넣어서 땅콩을 잡는다. 그 때 잡으면 된다. 서두를 것도 없다. 원숭이는 사냥꾼을 발견하면 도망치려고 호리병에서 손을 빼려 한다. 그러나 빠지지 않는다. 왜? 땅콩을 잔뜩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버리기만 해도 손이 빠지는데, 끝까지 한 주먹 가득 잡고 놓지 못해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 이 땅콩이 욕심과 욕망이다. 내가 땅콩이라 표현한 까닭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언급하고자 해서다. 욕심과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나치면 화를 자초한다는 것이다. 요즘 보면 권력과 재력, 명예, 모두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이 더 가졌다 자기 무덤 파는 것을 본다.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한데, 지금 자리도 높은데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 사냥꾼에게 잡히는 경우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욕심과 욕망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소유욕이 아니라 성취욕을 가져야 한다. 소유욕을 가진 자들은 ‘더, 더’를 외치지만, 성취욕을 가진 자들은 이룬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기 때문이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6:6).

사도 바울은 정말 손 안 가득 땅콩을 쥐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 손을 펴서 모든 것을 버렸고, 그 결과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삶을 찾았다. 그의 말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3).

손을 펴서 욕망의 덫을 빠져나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오는 12월 22일이면 예수중심교회 창립 30주년, 이초석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목사님의 목회 30년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믿음과 도전이란 두 단어가 곧 떠올려진다. 목사님의 초창기 설교는 믿음에 대한 설교와 간증탕어이다. “믿음은 거룩한 모험”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히 믿음의 도전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히11:6),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

양은 보물찾기”란 간증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천안예수중심교회 김기도 목사님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것임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이다, 검찰이다, 권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창졸시간일 때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아는 것도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배운 지식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속에 그런 치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거론하는 예수쟁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분명히 다르기에 인생이란 긴 마라톤경기에서 최후에 웃는 승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고 믿는다.

목사님은 목회 30주년을 앞두고 다시 30년을 뒤흔었다고 선포하셨다. 철산리 개척 당시의 초심과 그 정신으로 다시 30년을 달려가시겠다는 선포였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틈 없이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만난 것이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나 복 중의 복임을 안다. 호시탐탐 우리의 천국 길을 훼방하



“나의 일생은 기도였다”
목사님의 목회 30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해온 영광의 시간이었다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란 말씀을 증거하실 때처럼 담대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할 때 가장 확신과 희열에 차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말씀을 실행하고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몸부림치셨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적극 지지해주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믿음에 전념되어서 그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목사님을 따라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저녁예배에 “신

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목사님만 단에서 불을 토할 뿐, 우리는 그 외치는 소리에 무감각해져가고 있는 것 같다. 아프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병원이나 약부터 찾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 돈이나 힘 꽤나 쓰는 연줄을 찾아보고자 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퇴색하고 연약해진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김기도 목사님을 보면 천만에 발령 받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강단을 기도로 지켜온 종이로 여겨진다. 하나님은 정말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보다는 우직하고 미련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자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을 찾고 무슨 말을 할

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나태해진 신앙으로는 결코 이길 수도, 그 길을 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이겨야 한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패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지옥행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감기도 걸리고 아플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포기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믿음의 거룩한 모험을 떠나보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도 목사님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보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12월 15(월)~ 20일(토)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2:39~40)



지금 나의 습관을 점검해보자

모든 사람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회사를 가고, 회사 끝나면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와 TV를 보는 등, 하루의 습관 내지는 틀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 단위의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교회에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4분기로 나뉜 생활의 틀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 이렇듯 어떤 주기의 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나 틀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는 외형적인 틀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사무실에 나가 일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주일에 교회오고..., 이런 것들은 다 외형적인 틀입니다. 이 외형적 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면적인 틀이 있는데,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밥을 먹어도 습관적으로 빨리 먹는 자가 있고, 천천히 먹는 자가 있습니다. 육류만 먹는 자가 있고, 채식 위주로 먹는 자가 있습니다. 식전 기도를 해도 대충하는 자가 있고,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며,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시간만 때우는 자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똑같이 교회에 옵니다. 외형적인 틀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눈도장이나 찍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습관은 같지만, 내면적인 습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인생을, 더 나아가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

니다.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길들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나와 싸워야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무의식 속에서도 이뤄질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더 자고 싶은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지속할 때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이나 인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평생 제자리걸음 하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이 깨닫고 울고 회개하면서도 정작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 받고 깨달은 영향이 짧게는 하루요, 조금 길면 1~2주, 길게 가야 할 달정

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삶이, 신앙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자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든 습관이 될 때까지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평소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뇌가 심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킨답니다. 그것이 3일째가 되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며 3번만 넘기면 뇌가 받아들이고, 66일이 되면 몸도 받아들임으로 익숙하게 되어 비로소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변화 없이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때사 진실한 습관을 들여야 인생이 풀립니다.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부지런한 습관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는 링컨이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은 바로 기도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전에 행하던 대로’, 곧 습관입니다.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느브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형

통했습니다. 주님도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 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 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턴길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눅22:39~41).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에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건 잘라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투치는 버릇이 있어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화투를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맘대로 안 되어서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요, 나쁜 습관은 혁명적인 정신을 가지고 잘라내야 합니다. 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굳어진 습관을 잘라내기 어렵습니다.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죠. 최소 66일은 버텨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뺑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남이 집에 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집에 대포가 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

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물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뺑치는 습관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해도 어느 순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아예 꿰매버렸습니다. 그래도 자꾸 손이 갔지만 계속 노력했더니 이제는 그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습관이 있다

이제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성공의 큰 재료요, 자본입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영·혼·육에 성공하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도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울 것은 없고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집 사람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 세상 유혹에, 시험에 이기는 습관을 들여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역시 반복으로 가능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그 매니저가 그보다 약한 선수들을 붙여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다보니 정상급 선수들까지 습관 따라 쉽게 이기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복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도 형과 싸워 이겼고 외삼촌과 싸워 이겼으며, 그 습관대로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점검해보십시오. 내 외형적인 습관은 어떤지, 외형적인 습관은 괜찮은데 내면적인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지, 둘 다 좋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고, 더는 영생까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 다. 지금 나쁜 습관을 버리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좋은 습관이 당신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두려움은 죄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단 한번이라도 접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내 주위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두렵게 연습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급 무기인 '기도'라는 방패와 창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닐 것이다.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여 첫 취업을 한 곳이 '한국글렌도만'이라는 곳인데 내 일은 유아들을 방문하여 지도해 주는 교사였다. 그런데 이 일을 직업으로 하려면 차가 없이는 힘들었다. 하루에 많게는 40여 집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 많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생활을 탈피하고자 운전 면허를 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운전면허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면허증을 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였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몰고 다니는 소형 자동차가 있었다. 면허를 딴 것을 안 남자친구는 뿌듯해하며 내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 뉘엿 뉘엿 질 즈음에 집 근처로 드라이브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 배운 실력을 뽐내고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동네를 조금 돌고난 후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제 집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직진하여 좌회전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운전을 하면 전방주시는 물론 양옆과 뒤까지 신경을 쓰며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나보다. 그때였다. 너무나 서행을 했기 때문인지 뒤에서 차가 '뽕뽕' 하며 클랙션을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다.

그때 깜짝 놀람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앞이 캄캄해져 버렸다. 급당황한 나는 목적지를 그냥 지나칠 뻔 했으나 겨우 겨우 좌회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바퀴 하나가 인도에 걸치게 되었고, 다시 나는 페이스를 찾지 못한 채 전봇대는 아니지만 인도에 심겨진 나무에 정면 돌진해 버렸다. 그런 다음 겨우 차가 멈춰 섰다. 당황하다 보니 왼쪽이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았던 것이다. 머리가 캄캄했다.

그 날 이후로 내가 깨달은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는 어떤 일에도 손을 대지 말자는 것이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이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평안이 오지 않으면 텅비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1+1=1(?)

발명왕 에디슨의 일화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더는 가르칠 수 없다며 학교에 그만 보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하더니 에디슨을 향해 "1+1이 얼마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1+1=2입니다. 하지만 1+1=1도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이래서 다른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에디슨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근심하는 얼굴을 본 에디슨이 운동장에 있는 진흙은 양손에 가지고 와서는 "엄마, 1+1=1이 되는 걸 보여줄게. 잘 봐봐." 에디슨은 양손의 진흙을 하나로 합쳐들고는 "이것 봐. 1+1=1도 되

잖아." 했습니다.

에디슨,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1학년 1학기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1+1=1'의 원리로 +와 -의 전기가 합쳐져 전등에 불이 켜지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1+1=2'가 맞습니다. 그러나 '1+1=1'도 맞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수학적인 답이 아닌 후자의 답, 곧 창조적인 답, 예술적인 답, 기상천외한 답을 더 기대하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 답 안에 혁신과 도전에 성공이 있고,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1+1=1', 1+1=3, 1+1=∞ 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틀에 박힌 지식, 고정관념, 교과서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잠23:7).

예수중심편집실



::간중::



총회장 목사님은 목회초기에 개척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의 초청을 받아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교회들에게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저는 늘 목사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전라도의 아주 작은 섬 섬도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완도에서 현지까지 직접 가는 배편이 없어서 노화라는 섬을 거쳐 섬도를 가게 됩니다. 섬도로 가는 도중 노화 바닷가 뱃머리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에게 일일이 소주를 따라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했던 일들, 거의 삼십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감회가 새롭지만 합니다.

저녁 집회시간이 되어 모인 성도들의 숫

노화 앞 섬도에서 생긴 일

자가 어린아이에 젊은이, 그리고 노인 분들 다 하여 열 명 남짓이었습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 바닷가 나지막한 언덕에 블록 시멘트 벽돌로 자리 잡은 그 교회는 한 눈에 봐도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간신히 작동되는 앰프 하나와 양발로 씌 없이 발판을 밟아야 소리가 나는 풍금, 그리고 첼판 하나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마침 첼판이 있어서 가사를 써 놓고 풍금 반주에 맞춰 찬송을 부르며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저녁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지금과 같이 그분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시간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이던 그들의 눈빛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그렇게 나흘에 걸쳐 집회를 다 마친 후, 그 교회 담임이신 강동명 목사님과 성도들

은 총회장 목사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며 집회를 연장해주실 것을 간청했지만, 그 날 밤에 있을 금요철야예배를 위해 모든 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섬도에서 노화로 향하는 정기 배편이 없어 우리는 작은 통통배를 타고 노화까지 왔습니다. 노화에서 다시 배를 타고 목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폭풍주의보가 내려 뜨는 배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부수임 때문에 배를 대는 자가 있을 텐데, 풍랑이 너무 심해 아무도 엄두를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가서 오늘 저녁 본 교회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 금요철야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하시면서,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 그 자체처럼 여겨졌지만 목사님은 '구하라 찾으라(마7:7)'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겠냐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믿음대로 몰래 뜨는 배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통통배였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검푸른 파도가 눈앞에 넘실거리는 작은 배 위에서 목사

님과 저는 머리부터 온 몸을 세차게 때리는 파도를 가리기 위해 파란 비닐 포장을 뒤집어쓰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방언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험한 풍랑의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목포에 도착했고, 철산리 교회에 와서 철야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쁨과 환희로 금요철야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철야예배에 목사님이 철산리 교회 단상에 서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써 마땅히 고백되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춘천예수중심교회
김근철 목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자

보물찾기는 여러 곳에 물건의 이름을 적은 종이쪽지를 감추어두고 찾는 사람에게 그곳에 적힌 물건이나 미리 약속한 상품을 주는 놀이입니다. 종이쪽지를 감추는 사람은 먼 곳이나 못 찾을 곳에 숨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보물찾기처럼 가까운 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총회장 목사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자’는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7년 전, 천안교회는 성전건축을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년 메시지를 들으며 믿음의 확신이 왔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다 어느덧 10월이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 옆 실개천 건너편을 보니 평상시 관심도 없던 큰 건물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훼손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그곳으로 들어가 알아보니 건물 중간에 기둥이 없고 천정이 높아 교회로 쓰기에 적합한 건물이었습니다.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부지는 토지신탁회사에 대출 받기위해 신탁이 되어있고, 건물은 아파트 건축 시행사가 잠시 전세를 놓았다가 전세금을 반환치 못해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와 경매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아파트 시행인가가 나왔고 건물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거품이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입찰하지 말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190평 건물을 감정이 1억 5천만 원으로 보증금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입찰 경험이 없어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고 기도하여 1억 1천 78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똑같은

물건의 입찰서를 쓰는 사람이 입찰가격이 보이도록 작성하여 그 가격보다 20만원 더 써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사를 하고 7년 동안 단독 건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어느 건설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부지를 공매를 통해 매입하였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토지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한 최초 시행사는 부도가 났고, 새로운 건설회사가 인수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협상을 통하여 지료(토지 사용료) 2억 원을 면제 받고, 건물 보상금으로 8억 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최초 시행사가 아파트건축을 하였다면 7년간 사용된 지료 2억 원을 줘야 하고, 건물 명도소송을 당하여 결국 빈손으로 나와야 할 처지였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하셔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교회 신축을 준비하는데 천안시내권 부지가격이 평당 400만 원대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 주

신 하나님이 부지도 예비하셨을 것으로 믿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찾았더니 교회가 편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부지가 평당 250만원에 부동산에 나와 있었습니다.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토지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전성도가 기도하니 작정기도 한 달 후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건축을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도중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4년 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 있어, 성전건축을 빚을 지지 않고도 직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천안교회가 바라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찾지 않았다면 오늘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천안예수중심교회
김기도 목사



::내가 매일 기쁘게::

풋대를 향하여

나는 아직도 학생이다. 정확히 말하면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박사’는 사실 진짜 ‘박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진짜 ‘박사’는 지금의 내가 밟고 있는 과정을 수료하고, 여러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박사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박사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박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박사’를 가장한 박사님들이 너무 많다. 대외적으로는 00대학 박사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무늬만 박사인 ‘수료생’이다. 그들이 무늬만 박사인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결혼과 육아, 경제활동, 전공 연구 외의 비평과 창작 활동에 대한 관심 등등, 현실과 결부된 문제부터 도파형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박사들이 모인 곳에 가면, 6~8학기는 보통이고 대개가 13, 14학기다. 그러니깐 수료 상태로 2~3년은 기본이고, 6~7년씩 정제중이라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무늬만 박사인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감독 없이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책

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다. 나와 대면하는 시간, 내 지식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야 하는 시간은 공부해 해도 해도 낯설고 불편하기만 한 시간들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매일 책을 들여다보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지식에 압도당한다. 읽어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지적 공허함에 책을 부여잡고 우는 날도 허다하고, 나도 무늬만 박사로 남고 싶은 갈등에 흔들리는 날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밑물과 썰물이 드나들듯이 갈등의 순간들이 오고 갔지만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나는 박사과정은커녕 대학원 근처에 발도 못 붙였을 것이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는 이 말

씀은 안개 자욱한 터널 안을 걸어가는 내 발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등불이었다. 몇 년 전, 우여곡절을 겪으며 긴 방학과 방황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고통스런 시간을 견디지 못해 내 의지의 끈을 모두 놓아버릴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말씀이다. 나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3년 여 만에 연구실을 얻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간구했던 나만의 연구실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마련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전훈지 ppjee@hanmail.net

